

# “솔선해 화합하며 목표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죠”

## 삼보사찰 천리순례 각조 조장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대원력으로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상월선원의 세 번째 결사다. 이번 천릿길 대장정은 비구 49명, 비구니 6명, 우바새 17명, 우바이 25명 등 97명이 동행을 신청했다.

순례대중은 비구 4개조, 비구니 1개조, 우바이 2개조, 우바새 1개조로 나누어 삼보사찰을 참배한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 등이 포함된 1조 조장은 우봉 스님, 2조는 설도 스님, 3조는 법원 스님, 4조는 설암 스님, 6조는 이태경 불자, 7조는 김선희 불자, 8조는 정총래 불자가 선임됐으며, 비구니스님들로 구성된 5조는 현재 책임자를 논의 중이다. 각 조의 조장은 순례기간 지원단의 전달 사항을 전파하고, 조원들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423km의 대장정을 도보로 순례하는 고된 일정에 소임까지 부여받은 조장들의 마음가짐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자비순례에 이어 올해 천리순례에서도 1조 조장을 맡은 우봉 스님은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을 대중이 모여 가능케 했고, 그 감동의 현장을 다시 한 번 경험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소임을 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보사찰 순례길은 순례와 신심을 하나로 엮는 과정으로 불교에 대한 기본을 다지고 신심을 고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간절한 발원과 천리순례의 공덕으로 불교가 중흥되고 국난이 극복돼 모두가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조 조장 설도 스님은 재발심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스님은 “순례기간 어른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을 살피야 하는 소임을 맡게 돼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동진출가해 절집에서만 살다보니 삭발염의의 무게를 잊고 지낸 듯하다. 걸음걸이마다



우봉 스님



설도 스님



법원 스님



설암 스님



이태경



김선희



정총래

97명 신청...비구4·비구니1·우바이2·우바새1개조 운영  
423km 대장정 대중들 안전·건강 살피는 역할도 수행

다시 삭발염의의 의미를 새기며 하심으로 대중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3조 조장 법원 스님은 “함께하는 도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마음을 내겠다”고 했다. 스님은 “지난해 자비순례는 사부대중이 평등한 수행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면, 이번 천리순례는 삼보신앙을 통해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불교문화를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길에 문화적 의미가 정립되고 상징이 부여돼 일본의 시코쿠 헨로, 유럽의 산티아고에 견줄 세계적인 순례 아이코너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조 조장 설암 스님은 자신이 걷는 이 길이 불교중흥의 밑거름이 된다는 각오로 순례에 임할 것임을 다짐했다. “지난

해 순례길에서 만난 불자들의 불어린 눈시울에서 출가수행자로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됐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정작 중생에게 향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했다”고 고백한 스님은 “천리순례 걸음걸음이 산중불교에서 대중불교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면서 함께 타마하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6조 이태경(금강암) 조장은 지난해 자비순례에 참가하면서 신심 돈독한 불교 신자가 됐다. 그는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통해 불교를 접하게 됐고, 지난해 수련하는 마음으로 자비순례에 참가해 불교에 입문하게 됐다”며 “지난 1년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번 순례가 갖는 의미는 크다. 더불어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세로 발걸음을 옮기겠

다”고 말했다.

7조 김선희(지혜연) 조장은 조장들 가운데 유일한 첫 참가자다. 그는 “지난해 비순례에서 걸음걸음에 오롯이 마음이 집중되는 가슴 벅찬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많은 스님들과 사찰을 참배하고 법을 청하는 자리를 함께한다는 게 영광스럽다”며 “순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마음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8조 정총래 조장은 이번 천리순례를 신청한 대부분이 지난해 참가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11km를 걸었던 자비순례가 고행이 아닌 감동과 일력의 길이었음을 이번 순례대중이 증명하고 있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자로서 기본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솔선하고 화합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 흥국사 주지 성웅·적조사 주지 탄탄 스님

원행 스님, 9월15일 임명장 수여  
“포교·복지 관심 가져달라” 강조

고양 흥국사 주지에 성웅, 서울 적조사 주지에 탄탄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결실에서 흥국사 주지 성웅 스님과 적조사 주지 탄탄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성남 봉국사 주지 해일 스님이 배석했다.

원행 스님은 성웅 스님에게 “선원에서 열심히 수행한 스님이 큰 소임을 맡아주 고맙다”며 “선원에서 정진했던 원력으로 가람 수호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교중앙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탄탄 스님에게 “소임이 하나 더 늘었다”면서 “힘이 조금 더 들겠지만 그간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일해



성웅 스님

탄탄 스님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두 스님을 향해 “어려운 시기 큰 짐을 지게 돼 책임감이 클 줄 안다. 그럼에도 포교와 복지 등 불교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흥국사 신임 주지로 임명된 성웅 스님은 종상 스님을 은사로 1981년에 수계(사미계)했으며, 보경사 주지를 역임했다. 적조사 주지 탄탄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계)했으며,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불교중앙박물관장을 맡고 있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 조계사, 추석 앞두고 자비나눔 실천

9월15일, 종로구 소외계층에게  
햇반·김 등 생필품 500세트 전달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국불교총본산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 스님)가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했다.

조계사와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9월15일 ‘어려우수록 이웃과 함께-2021 한가위 마음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김문주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여봉무 종로구회의장이 참석했다. 물품은 국수, 김, 햇반, 세면도구 등으로 구성된



500세트 총 1250만원 상당이다. 주지 지현 스님은 “조계사는 힘들고 어려운 곳, 고동스럽고 갈증이 많은 곳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나 달려가겠다”며 “조계사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올 한가위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 조계종·불출협,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9월30일~10월8일 출판작 접수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8회 불교출판문화상 및 올해의 불서 10’ 공모작을 모집한다.

불교출판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는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 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판 및 증보판 도서와 공공기관출판물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기관에 지원하거나 선정된 도서

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불교를 주제로 한 모든 분야의 저서 및 역사로서 출판 도서 중 10종을 올해의 도서로 선정한다. 올해의 불서 10권 중에서 대상 1종 및 우수상 2종, 수향번역상 1종, 운주사학술상 1종, 보덕포교상 1종, 입선 4종을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9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이며, 기본 서지정보 및 개요 1부, 신청도서 5부, 4권 이상 점점을 2점을 불교출판문화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02)3672-7181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 송광사 괘불재

1961년 일섭 스님 등 13명의 화원들에 의해 조성된 이래 60년 만에 처음으로 송광사 괘불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대형 불화로 만나는 특별한 부처님 친견하시고 저해와 복이 증장되기를 기원합니다.

**입재**  
2021년 9월 30일(목)  
오전 10시

**희향**  
2021년 10월 4일(월)

**장소**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



1961년 괘불점안법회를 마치고 일섭 스님과 신도들의 기념촬영.

2021 부산광역시 민간 경상 보조금 지원사업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희망세상만들기 제13회**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

2021. 10. 02(토)  
10:00~16:00  
초읍어린이대공원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야외광장

---

♥ **참여자상** : 부산 시민 · 본부 장기기증 및 후원회원  
♥ **개막식** : 개회사 및 월례어 전달식 14:00      ♥ **체험부스** : 10:00 ~ 16:00  
♥ **문의** : Tel 051. 853. 0429 Fax 051. 853. 0439  
E-mail bssangmung@hanmail.net

---

♥ **장기기증캠페인 및 공감기부 프로젝트 홍보**  
♥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진디머리 인형만들기, 티투, 손소독제 만들기, 롤케이크 쿠키만들기 등)  
※ 행사참여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 주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KBS 부산방송    부산MBC    KNN    BBS 부산방송    BTN  
· 협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지리산    KU    김&정    해운대병원    구포부민병원    대동병원    인제대학교부산병원  
· 인제대학교교육대학병원    이나병원    금슬병원    정전차